

물고기 새 되어 날아오르면 깨달음이...

성륜 스님 개인전 '무브먼트'
5월 20일~29일 윤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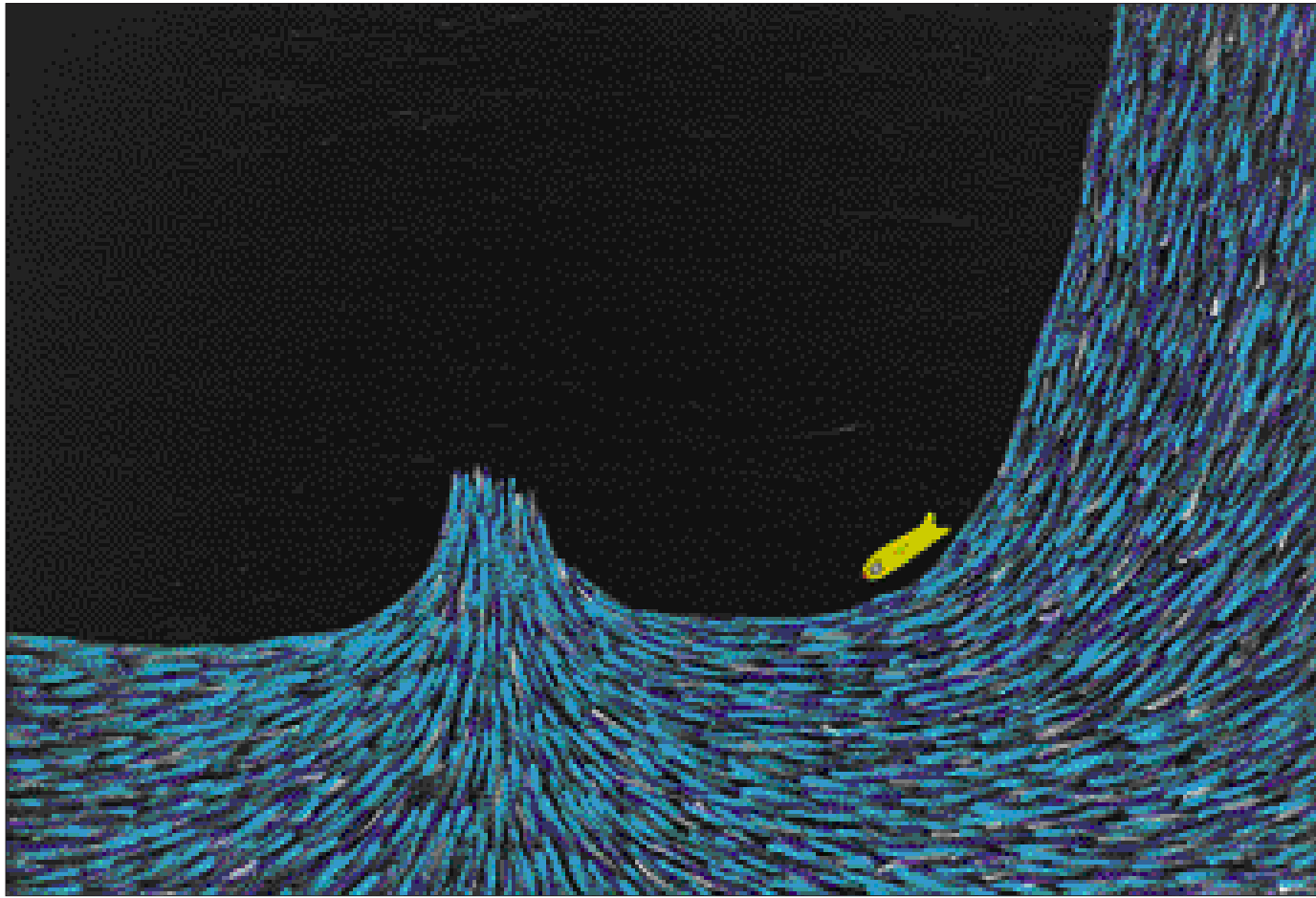
“세상의 생명체는 닦고 행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달 햇빛 공기와 바람 일체 자연의 모든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존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존재죠. 멈추면 썩고 죽어 버려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것은 곧 존재를 의미하고 또 끊임없는 변화를 말하죠. 세상 만물이 머물러 있지 않은 그 진리의 깨달음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선화가 성륜 스님이 5월 20일~29일 윤갤러리에서 개인전 '무브먼트(movement)'를 연다. 노장사상의 소요유를 물고기의 움직임을 통해 불교적으로 해석한 스님의 '소요유'는 파리(2010) 뉴욕(2014) 등에서 전시돼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한국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주제다.

“복명에 물고기가 있었다. 이름은 곤이다. 곤은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물고기가 변해 새가 되었는대 새의 이름은 봉이다. 봉의 등 넓이도 몇 천리에 달하는지 알 수 없었다. 봉이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마치 하늘을 가득 뒤덮은 구름 같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을 타고 남쪽으로 옮겨가려 한다. 남명은 바다이다.”

(장자) 1편에 나오는 소요유의 한 대목이다. 스님은 물고기가 새로 변화하는 과정을 작품 '소요유'에 담아냈다. 노란 물고기가 바다를 향하면 수많은 물고기 떼는 태양을 향해 거대한 이동을 하니 햇무리가 일어나듯 주변은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또한 밤이 되어 노란 물고기가 칠홍 같은 바다를 향하니 물고기 떼는 어느새 거대한 파도가 되어 솟아오른다.

그렇다면 수행자 성륜 스님에게 소요유는 어떤 의미일까? “불교에서 물고기는 수행자를 의미해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물고기는 제 자신이기도



선화가 성륜 스님은 5월 20일~29일 윤갤러리에서 개인전 '무브먼트(movement)'를 연다. 스님은 노장사상의 '소요유'를 물고기의 움직임을 통해 불교적으로 해석했다.

장자의 소요유 이미지로 형상화

수행자 비유한 물고기 통해

변화의 깨달음 화폭에 담아내

하고 모든 수행자를 말하기도 하죠. 수행자란 낮에는 태양과 놀고 밤에는 달빛의 여유를 즐기며 늘 구름과 공기를 친구 삼아 달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수행자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살아가는 사람이며 일상에서

만족을 느끼며 사는 사람을 말한다. 결국 자유로운 삶 걸리지 않는 무욕의 삶이 수행자의 가장 아름다운 일상이라 말하는 성륜 스님. 그래서 '무브먼트'에서는 수많은 물고기를 즉 수행자의 움직임을 통해 거대하게 변화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노란 물고기는 구도의 길을 가는 작가인 듯 보인다. 그래서 장자와 부처님과 작가가 한바탕 노는 세상이 곧 소요유 속에 펼쳐진다.

“관음보살은 오온이 공한 자리가 일체의 고역을 벗어난 자리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고역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두려움이 줄어들고 공포가 사라지면 이것이 걸림없는 삶이며 '무유공포'죠. 그 움직임의 변화 깨달음이 곧 장자의 소요유를 넘어 불교의 '소요유'라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과 벗하고 밤에는 달빛을 친구 삼고, 살갱으로 바람을 맞으며 호흡으로 생명의 존재를 느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신을 지켜보라.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두려울 것도 없다. 그래서 물고기가 된 새처럼 세상만물의 이치를 깨달으면 자유를 얻게 되리라. (02)739-114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com

제13회 유심작품상 수상자 선정

시부문에 박형준 시인 등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제정하고 월간 <유심>이 주관하는 '제13회 유심작품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수상자는 △시부문 박형준(시인, 동국대 교수)의 '아스팔트에서 강물소리가 나는 새벽' △시조부문 김복근(시조시인)의 '볼트와 너트의 詩' △평론부문에 이승원(문학평론가, 서울여대 교수)의 '한국 현대시 연구의 맥락'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특별부문은 하인즈 인수 펜클(미



시조부문 김복근



시부문 박형준

국 뉴욕 주립대학 교수)이 선정됐다. 상금은 각 부문 1500만원이며 시상식은 8월 만해축전 기간 중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음악으로 정근하며 부처님 만나요

해성 스님 정근송 '붓다의 향기'

해성스님의 정근송 '붓다의 향기'가 발매됐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광명진언 석가모니불 등 세 장으로 구성된 이 음반은 환우들이 병상에서도 정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성 스님은 “늘 경건한 자세로 정근하던 것이 습관화된 불자들이 병상에서 누운 자세로 정근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보았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환우들이 좀더 친근하고 쉽게 정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고민을 능인 스님에게 말씀 드렸더니 스님께서 흔쾌히 곡을 붙여줘 음반을 발매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불자들의 일상생활과 특히 병원 장애인 시설 요양원 등에서 만난 불자들에게 열불은 너무도 필요하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스님은 “삶에 지쳐 몸과 마음이 힘들고



붓다의 향기 음반 표지

병상의 환우 정근 기회 제공

불자들 일상 속 열불 권장도

괴로운 불자들이 정근송을 들으며 편안한 마음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음반은 환우들은 물론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열불을 접하고 정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1577-3744 정혜숙 기자

“한국차문화의 새 활력 불어넣고자”

혜우 스님 차 개인전 5월 15일~17일 길상사서

혜우 스님(전통덕음차제다교육원 원장)의 차 개인전이 5월 15일~17일 서울 길상사 정묵당 및 대웅전에서 열린다. '혜우 스님의 전통차와 현대차 그리고 피아골 홍류동차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차문화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혜우 스님은 “한국차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다변화된 차를 통해 소비계층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차는 종류가 너무 단순해서 다변화시키기 마련된 전

시다. 홍류동차, 사시락차 등 16 종류의 차를 전시 현대차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혜우 스님은 한국차문화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제다법을 늘 고민해왔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제다법으로 만든 다양한 차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에 이르렀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옛날 단차의 현대적 복원이다. 스님이 개발한 홍류동차는 산화효소작용을 제다과정에서 촉진시켜 단차로 만들어 단맛이 많고 탱색이 붉어 가을 홍류동

계곡에 흐르는 단풍빛에 물든 고운 계곡 물 느낌이 난다. 사시락차 언제 먹어도 즐겁다는 뜻을 가진 사시락은 구수하고 깊은 전통발효차의 맛이 물씬 난다.

이번 전시회와 함께 차를 맛볼 수 있는 대중적인 시음행사도 열린다. 시음과 함께 법정 스님 영전에 누구나 헌다할 수 있는 시간을 전시 내내 진행한다.

혜우전통덕음차제다교육원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차농들에게 차 만드는 법을 전수하고 있는 혜우스님은 30년 넘게 우리전통의 차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다반사> <차물기행> <알고보면 쉬운 차> 등이 있으며 한국차문화잡지인 <차와문화> 발행인을 역임했다. 010-9308-7979

정혜숙 기자



혜우 스님이 차를 두고 있다.

붓다콘서트 '찬불가 부르기 열창대회'

5월 11일까지 참가신청서 접수

좋은 벗 풍경소리가 주최하는 '덕신 스님과 함께하는 붓다콘서트'가 2015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찬불가부르기 열창대회를 연다. 이에 좋은 벗 풍경소리는 5월 11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받는다.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불자들이 찬불가를 부르며 찬불가에 대해 관심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문화포교, 불교음악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한바탕 찬불가를 부르며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예선은 5월 1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기념공연

장에서 이루어지며 본선은 5월 21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실시된다. 찬불가를 사랑하는 모든 불자(특창, 4인 이하의 중창)들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곡은 찬불가, 찬불가요로 제한한다.

찬불가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등

신청서는 좋은 벗 풍경소리, 붓다콘서트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상금은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2명 각 30만원, 인기상 2명 각 10만원, 응원상 1명 30만원이다. (02)723-9836 정혜숙 기자

20년의 경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숲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평마을로 100번